

광주·전남 '4차 산업혁명'도 뒤처지나

광주 스마트 에너지시티·전남 에너지신산업 등 추진 계획 마련
치열한 선점경쟁 속 구체성 떨어져...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 육성

세상을 바꾸는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어젠다에 대한 선점 경쟁을 벌임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한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스마트 에너지시티 조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과 바이오산업, 스마트팜 등 각 분야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양 시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육성의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태양광(10MW)과 연료전지(50MW), 심부지열(5MW)을 보급하는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전기 승용차와 버스 등의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 아파트 50개 단지 조성하고 공공기관 54개소의 비상발전기를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남도도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신사업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가상물리체계(CPS), 사물인터넷(IoT), 실감미디어산업 등 첨단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산업혁명을 앞두고 관련 실·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이 총망라된 산업구조 시대를 말한다. 18세기 초기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로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를 연결시켜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국에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검토중이다. 특히 한전이 올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강화에 투자하는 것에 주목해 공조 체계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빠르면 15일 결정할 듯

특검, 롯데·SK·CJ 등 수사 개시 주 중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롯데, SK, CJ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를 개시할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검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인 13일 브리핑에서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관련한 수사를 일단 매듭짓고 난 뒤 다른 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조속히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새벽까지 조사할 경우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이튿날인 15일 영장을 청구하면 17일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특검보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한 내에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 등이 재벌 총수 사면·복권이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에 출연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삼성 이외의 기업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거나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으로의 수사확대는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롯데그룹은 최 씨 측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SK와 CJ는 각각 최대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그룹들은 청탁은 전혀 없었으며 정부의 관련 특혜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 "경쟁하고 힘 모아 정권교체 이룰 것"

민주 15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가 13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뛰어 들었다.
<관련기사 3·4면>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를 찾아 대리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밟았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예비후보 등록은 정권교체를 위해 당의 일원으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라며 "우리당 후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함께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주말 광장의 촛불은 더욱 커졌다. 적폐세력의 정권연장 음모를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외침이었다"며 "문 전 대표는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계획을 들고서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적폐청산의 시작이자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문 전 대표가 마지막으 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내에 경선 분위기가 고조될 조짐이다."
한편, 문 전 대표가 이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자 당내 후보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 선정

강진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됐다.
문광부는 13일 "서류 심사, 프레젠테이션, 현장실사 등 3차 심사를 거쳐 강진군을 비롯해 경기 안산시, 울산 중구를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매년 관광 잠재력이 있는 기초 지자체를 선정, 3년간 최대 국비 25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년 차 컨설팅과 조성 계획 수립, 2년 차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 정비를 거쳐 3년 차 그해의 '관광도시'로 관광객 유치와 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
강진군은 가우도, 마량 미항 등 해양관광과 다산 초당, 하멜 유적지 등 역사문화, 독자적인 농촌 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해 즐길거리가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화할 수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자체와 주민간 협력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점도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의 대한민국을 구할 자가 누구인가. 혁명과 우리의 미래를 안철수와 함께!

안철수, 조선대 사이언스 토크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3일 오후 광주 조선대 서석홀에서 열린 '사이언스 토크쇼'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정채원 지지를 회복에 주력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새마을회 지원 이대로 좋은가 ▶ 6면
新湖南誌 - 玉문화와 호남 ▶ 18면
WBC 출전 안현중 "파란색 유니폼도 잘 어울려요" ▶ 20면

광주일보 since 1952 65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 K-클래식의 대표주자
첼리스트 정명화 | 피아니스트 손열음 |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ticketmaru.co.kr/1588-0766) |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제작 WCN WORLD CULTURE NETWORK